

#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

마지순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Empathic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on Caring behavior

Ji-Sun 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중소도시 1시의 4,5세 유아 152명이며, 검사도구는 배려행동, 공감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의 공감능력과 배려행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려행동 중 가치부여적행동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치부여적행동과 공간능력의 하위영역인 기쁨과 심적부담이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배려행동과 대인관계형성능력 전체는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적 반응성과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규범적 행동과 사회적반응성, 능동적행동과 지시따르기, 가치 부여적행동과 긍정적 상호작용, 정서적행동과 사회적반응성과 가장 높은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배려행동 중 정서적행동에는 사회적반응성이 정적인 예측변인이며, 관계형성하기는 부정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행동에는 지시따르기가 정적예측 변인이며, 심적부담은 부정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행동은 사회적반응성이 정적인 예측변인, 관계형성하기와 심적부담 부정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부여적행동에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정적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반응성, 지시따르기,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유아의 관계형성능력과 불안의 요소를 줄이는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aring behavior in forming relationships. Subjects included 152 4- and 5-year-old children attending a kindergarten located in a micropolitan city. Questionnaires required self-reporting by teachers, and were used to investigate young children's caring behavior,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Stepwise-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young children's caring behavio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pathic abilit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Second, young children's emotional behavior as each domain of caring behavior were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the social reactivity and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relationship formation. Active behaviors were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follow-up instructions, but negatively affected mental burden. Normative behaviors were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social reactivity, but negatively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the relationship formation and mental burden. Value-contributing behavior in each domain of caring behavior were predictable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relative effect of the positive interaction.

**Keywords** : Caring behavior, Empathic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Program development of Caring behavior program, young children

---

이 논문은 2017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i-Sun Ma(Wonkwang Health Science Univ.)

Tel: +82-63-840-1297 email: jisunsky@wu.ac.kr

Received March 21, 2018

Revised May 2,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 1. 서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는 유아기부터 도덕적 의식을 함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적 경험의 제공을 위한 노력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관계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더욱 인정받으며 배려의 가치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질서, 배려, 협력 등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으며, 교육목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배려를 통한 인성교육이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

배려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간관계, 책임과 의무, 타인 대한 관심, 동정, 사랑 등의 가치를 내포하는 개념이다[3]. 배려행동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의 어려움이나 필요에 응해주는 협조적이며 타인지향적인 실천적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4]. 특히, 배려는 자신을 아래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5]. 즉 배려행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하므로 유아가 배려행동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온정적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6].

그러므로 배려행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을 지니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인 대인관계형성능력[19]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정서상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공감능력은 타인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뿐 아니라 타인을 돕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동기화한다[7]. 공감능력이 발달한 유아는 서로 수용하고 소통하며, 타인 입장을 고려하는 정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8] 배려행동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배려행동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식, 입장 생각하기 등의 정서적 측면이 가능한 상태일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하여 타인과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대인관계형성 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배려행동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타적 성향을 함양하는 교육이 쉽지는 않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성향을 함양하는 데 유리하므로 배려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함 [21]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아교육에서 배려의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유아교육에서 배려에 대한 연구는 배려행동 척도개발[9, 10] 배려증진 프로그램 연구[11, 12]가 있으며, 배려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13]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감능력에 관한 연구는 공감능력과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14, 15, 16, 17]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감능력이 대인관계능력, 사회성, 이타행동들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공감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9], 유아는 공감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도움 행위로서 반응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4]. 대인관계형성능력에 연구들은 관련 변인 [18]에 대한 연구와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19]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배려행동과 공감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은 배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타인의 정서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요소로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감능력[22]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인 대인관계형성능력[19]은 유아들의 배려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공감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 배려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공감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배려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중수도 시인 I시의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유아는 4세 유아 69명(45.6%), 5세 유아 83명(54.6%)이며, 담임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 2.2 연구도구

#### 2.2.1 배려행동

유아의 배려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Lipman[23]이 제시한 배려적 사고의 유형 및 특성을 근거로 이춘희(2008)[24]가 개발한 유아들의 행동에 관한 배려적 사고 문항들을 한명숙(2013)[1]이 ‘배려적 사고’에서 ‘배려행동’으로 용어를 수정·보완하고, 정서적 행동, 능동적 행동, 규범적 행동, 가치부여적 행동의 4개 하위영역, 총 32문항으로 수정한 검사도구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검사방법은 유아의 평상시 행동양식을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배려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려행동 검사도구는 정서적 행동 11문항, 능동적 행동 8문항, 규범적 행동 6문항, 가치부여적행동 7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배려행동 신뢰도 전체는 *Cronbach's a* .96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행동 *Cronbach's a* .92, 능동적 행동 *Cronbach's a* .89, 규범적 행동 *Cronbach's a* .88, 가치부여적행동 *Cronbach's a* .84으로 나타났다.

#### 2.2.2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Bryant(1982)[25]가 제작한 척도를 참고로 연진영(1987)[15]이 제작한 것을 최수량(2002)[26]이 만5세반 유아에게 교사가 질문하여 대답하는 질문형으로 수정하였고, 이것을 만 5세반 유아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림카드를 제작하여 보조도구로 함께 사용한 강민주(2010)[27]의 공감능력 척도를 수정한 이효주(2013)[28]의 연구도구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공감능력은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고, 채점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0점, ‘보통이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에 3점을 부여하였으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를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를 표현한 후 ‘그렇다’로 표현한 경우 큰 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로, 중간 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로, 작은 원을 선택하는 경우 ‘보통이다’로 구분하였다. 점수가 높은 유아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 공감능력 검사도구는 슬픔 3문항, 심적부담 5문항, 기쁨 5문항, 불안 5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 .85 였으며, 문항별로 슬픔이 *Cronbach's a* .67이며 심적부담 *Cronbach's a* .72, 기쁨 *Cronbach's a* .72, 불안 *Cronbach's a* .72로 나타났다.

#### 2.2.3 대인관계형성능력

유아 대인관계형성능력 검사는 NICHHD(1996)[29]에 의해 개발된 *Social Competence* 척도를 기초로 김성민(2009)[20]이 재구성한 교사용 대인관계형성능력 검사도구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대인관계형성능력 검사도구는 관계형성하기, 사회적반응성, 지시따르기, 긍정적 상호작용의 4개 하위요인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검사방법은 담임교사가 유아의 평상시 행동을 관찰 한 후 각 문항마다 제시되어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체크하고 점수는 1점에서 4점까지 4점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형성능력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 .81, 관계형성하기는 *Cronbach's a* .65로 비교적 낮은 신뢰도가 나타났지만 문항 수가 적음을 고려한다면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반응성은 *Cronbach's a* .82, 지시따르기 *Cronbach's a* .89, 긍정적 상호작용 *Cronbach's a* .79로 나타났다.

#### 2.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변인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유아의 배려행동과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변량팽창계수(VIF), Durbin-Watson 값을 산출하였다. 변량팽창계수(VIF)는 1.000~1.498 사이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1.36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값 간차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2에 근접하므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결과 및 해석

#### 3.1 유아의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형성능력과 배려행동의 관계

유아의 배려행동, 공감능력, 대인관계형성능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1과 같다. 유아의 공감능력과 배려행동 전체는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 $r=.107, p>.05$ ). 하위영역에서는 가치부여적행동이 공감능력 전체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r=.208, p<.05$ ), 가치부여적행동은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기쁨( $r=.253, p<.01$ )과 심적부담( $r=.172, p<.05$ )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배려행동과 대인관계형성능력 전체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r=.452, p<.001$ ). 특히 사회적반응성에서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r=.478, p<.001$ )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규범적행동과 사회적반응성( $r=.627, p<.001$ ), 능동적행동과 지시따르기( $r=.476, p<.001$ ), 가치부여적행동과 긍정적상호작용( $r=.364, p<.001$ ), 정서적행동과 사회적반응성( $r=.400, p<.001$ )에서 정적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유아의 공감능력과 배려행동 전체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려행동 중 가치부여적행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치부여적행동과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기쁨과 심적부담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배려행동과 대인관계형성능력 전체는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적 반응성과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규범적 행동과 사회적반응성, 능동적행동과 지시따르기, 가치부여적행동과 긍정적 상호작용, 정서적행동과 사회적반응성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Relationship of Caring Behavior, empathic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N=152)

	Caring behavior				Total	
	Emotional behavior	Active behavior	Normative behavior	Value-contri buting behavior		
Empa thic ability	Sadness	.160	.123	.033	.094	.125
	Mental burden	.029	.052	.077	.174*	.082
	Pleasure	.026	.033	.114	.253**	.101
	Anxiety	-.016	-.018	.098	.094	.032
	Total	.054	.055	.109	.208*	.107
Interpers onal compet ence in Forming relations hips	Social Reactivity	.400***	.382***	.627***	.338***	.478***
	Follow-up instructions	.301***	.420***	.451***	.322***	.408***
	Positive interaction	.243***	.344***	.321***	.364***	.345***
	Relationship formation	.011	.137	.104	.180*	.107
Total	.346***	.416***	.527***	.371***	.452***	

\*\*\* $p<.001$ , \*\* $p<.01$ , \* $p<.05$

#### 3.2 유아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배려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2와 같다. 유아의 배려행동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행동에는 사회적반응성이 15.5%로 가장 높은 영향력( $F=27.875, p<.001$ ), 관계형성하기는 3.5%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19%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237, p<.001$ ). 능동적 행동에는 지시따르기가 17.1%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F=31.217, p<.001$ ), 심적 부담은 3.2%를 추가하여 총 20.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19.705, p<.001$ ). 규범적 행동은 사회적반응성이 38.9%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F=94.652, p<.001$ ), 관계형성하기는 4.4%를 추가하여 총 43.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7.103, p<.001$ ), 심적 부담은 1.3%를 추가하여 총 44.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40.479, p<.001$ ). 가치부여적 행동에는 긍정적상호작용이 12.7%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369, p<.001$ ).

**Table 2.** The Effect of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Forming Relationships on Caring behavior (N=15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eta	SE	R <sup>2</sup>	adj R <sup>2</sup>	F
Emotional behavior	(constant)	2824.34	.40	218.07	.160	.155	2785**
	social reactivity	3128.44	.51	242.07	.201	.190	1827**
Active behavior	(constant)	2076.35	.48	142.05	.176	.171	3127**
	social reactivity	2137.45	.62	138.06	.214	.203	1975**
Normative behavior	(constant)	1230.31	.63	106.03	.383	.389	9462**
	social reactivity	1418.37	.74	115.03	.441	.433	7103**
Value-contributing behavior	(constant)	1392.38	.78	115.03	.457	.446	4049**
	social reactivity	1418.37	.74	115.03	.441	.433	7103**
	(constant)	2017.32	.37	137.07	.133	.127	2238**
	positive interaction						

\*\*\*p<.001

배려행동의 하위영역 정서적 행동에는 사회적반응성이 정적인 예측변인이며, 관계형성하기는 부적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능동적행동에는 지시따르기가 정적 예측변인이며, 심적부담은 부적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규범적 행동은 사회적반응성이 정적 예측변인, 관계형성하기와 심적부담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치부여적행동에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정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배려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유아의 공감능력과 배려행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려행동 중 가치부여적행동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치부여적행동과 공간능력의 하위영역 기쁨과 심적부담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려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간주할

때 공감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던 연구결과[4, 5, 6] 반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는 공감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도움행위로써 반응한다[15]는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쁨과 심적부담의 하위영역과 배려행동이 관련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려행동 중 가치부여적행동이 기쁨과 심적부담과 관련이 나타난 결과는 또래가 스스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인정을 잘해주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거나 염려를 나타내는 가치부여적행동은 유아의 공감능력 중 타인에 대한 기쁨이나 심적부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유아의 배려행동과 대인관계형성능력 전체는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적 반응성과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규범적 행동과 사회적반응성, 능동적행동과 지시따르기, 가치부여적행동과 긍정적 상호작용, 정서적행동과 사회적반응성과 가장 높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려행동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이 긍정적관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배려행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로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타인의 성장과 가능성을 돕기 위해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돌보는 행위[30]이므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이 요구된다는 연구결과[31]를 지지해 주는 객관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배려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하므로 유아가 배려행동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온정적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인적 환경의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기[6] 때문에 배려행동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은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므로 배려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형성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배려행동 중 정서적행동에는 사회적반응성이 정적인 예측변인이며, 관계형성하기는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행동에는 지시따르기가 정적예측변인이며, 심적부담은 부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행동은 사회적반응성이 정적인 예측변인, 관계형성하기와 심적부담 부적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부여적행동에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정적 예측변인인

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적행동과 규범적행동에는 사회적반응성이 정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반응성이 규칙을 따르거나, 다른 유아와 공유하기, 협동하여 놀기, 놀이에 대한 제한 수용하기, 좌절에 대한 반응하기 등으로 다른 유아와 사회적인 규칙이나 또래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대인관계형성능력이므로 유아의 정서적인 행동과 규범적 행동의 배려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적행동과 규범적행동에 대하여 관계형성하기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본 연구에서 관계형성하기의 내용이 자기소개하기, 다른사람의 이름사용하기 등 단순한 내용으로 부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유아의 능동적 행동과 규범적 행동에는 심적부담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아가 타인에게 배려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고 배려가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민감해야 한다는 의견[31]에 비추어볼 때 유아가 타인에 대하여 느끼는 심적부담은 유아의 능동적행동과 규범적행동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배려행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유아의 단순한 관계형성하기와 심적부담을 주는 내용은 배제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능동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따르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타인이 원하는 형태의 행동을 취하여 주는 것이므로 이는 유아의 배려행동 중 유아가 타인에 대하여 좀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치부여적행동에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유아가 배려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고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요구된다는 연구[31]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아의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배려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감소되고 친밀감이 높아져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한 연구[4]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배려행동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사회적 반응성, 지시 따르기,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유아의 관계형성능력과 불안의 요소를 줄이는 내용을 구성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그림책 읽기, 등극 활동, 협력적 활동 등을 전개한다면 유아들의 배려행동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지각에 기초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한 양적 연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질적인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배려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사회적 반응성, 지시따르기,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유아의 관계형성능력과 불안의 요소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배려행동증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유아의 배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현상학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유아의 배려행동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배려행동,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고 배려행동에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배려행동 증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배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과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References

- [1] M. S. Ha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Home Environment Which Affect Caring Behavior of Early Childhood- Focusing on Family Strongness, Mother-Child Interaction, Stimulated Home Environment - Docto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3.
- [2] S, O. Park, & J. Y. Hwang, "The Effects of Caring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on Self-esteem and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30, no. 4, pp. 221-244, 2012.
- [3] M. S. Choi, & H. S. Youn, M. J. Kim, "Exploring the implication of care-oriented morality o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vol. 16, no. 2, pp. 71-83, 2007.

- [4] S. J. Do,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and Peer-Relationship on Caring. Maste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2010.
- [5] M. S. Lee, A Study on Nel Noddings' View of Care Education. Docto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8.
- [6] H. G. Kim, The Influence of Raising-plant Activity Reflecting Children's Interest on Children's Caring Thinking and Nature Friendly Attitude. Maste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3
- [7] Hoffman, M. (1984). Empathy, It's Limitation, and Its Role in a Comprehensive Moral Theory,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pp. 283-302), New York.: Wiley.
- [8] S. H., Song, & H. Seo,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young children's sharing",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2 no. 1, pp. 31-58, 2012.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1.002>
- [9] C. O. Park, & Y. S.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aring Scal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9, no. 4, pp. 49-67, 2015.
- [10] J. L. Kim, & O. S. Yang, "Development of a Caring Behaviors Scale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0, no. 3, pp. 135-164, 2016.
- [11] J. Y. Kim, & C. O. Park, "The effect of a dramatic play program employing personal narratives on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ar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3, no. 6, pp. 21-37, 2013.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3.33.6.002>
- [12] Y. J. Ha, & J. H. No, "The effects of caring activities using fairy-tales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peer competence",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3, no. 2, pp. 21-40, 2014.
- [13] S. N. O. K. & O.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based car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5, pp. 137-159, 2016.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1-5-06>
- [14] M. S. Choi, & N. W. Ku,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athic Abilities, Intimacy with Seniors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Recognizable to the Subordinate PDF ic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0, no. 4, pp. 1227-1241, 2008.
- [15] J.Y. Yeon, A study on the empathic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Master's Thesis from Graduate of Seoul University, 1987.
- [16] E. J. Kwak, Effect of Empathy Training Program on the high-school girl'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Master's Thesis from Graduate of Busan University. 1998.
- [17] J. H. Kim,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dolescent's Empathy, and Their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to Friends. Maste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2.
- [18] J. H. Lee, & Y. A.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2, pp. 579-594,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5.2.201404.579>
- [19] W. Y. Park, & J. S. Ma, & M. Y. Kim, "The Effect of Emotio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vol. 13, no. 11, pp. 5083-5090,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1.5083>
- [20] S. M. Kim,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Variable Affecting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ve Competence. Docto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 [21] M. S. Lee, & C. H. Kwon, Nel Noddings' View of Care Education -Focus on Infancy Education & Teacher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 22, pp. 59-79, 2010.
- [22] S. K. Lee, Teachers' Interaction to Young Children, Play Flow & Self-Efficacy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Flow. Docto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2016.
- [23] Lipman, M.(2003). *Thinking in education*,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https://doi.org/10.1017/CBO9780511840272>
- [24] C. H. Lee, A study to enhance young children's caring thinking through the community of philosophical inquiry. Docto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Dong Duk University. 2008.
- [25]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 53, pp. 413-425, 1982.  
DOI: <https://doi.org/10.2307/1128984>
- [26] S. R. Choi,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 Linguistic Type of Father and Young Children's Empathic Level. Maste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2002.
- [27] M. J. Kang,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Work Value and Job Preference according to Generation, Maste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0.
- [28] H. J. Lee, The Effect on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ic ability of young Children through Caring education Activities, Master's Thesis from Graduate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3.
- [29] NICHD(1996), "Character of infant child care :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11, pp. 269-306, 1996.  
DOI: [https://doi.org/10.1016/S0885-2006\(96\)90009-5](https://doi.org/10.1016/S0885-2006(96)90009-5)
- [30] S. Y. Youn, & Y. Y. Sung, " Research on Nurse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Behavior Characteristics of Ages only Five and Difficulties of Child Care Education", *The Research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8 no. 1, pp. 37-56, 2012.

- [31] J. L. Kim, Development of caring behaviors scale for young children. Doctor's Thesis from Graduate School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2015.
- 

마 지 순(Ji-Sun Ma)

[정회원]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9년 3월 ~ 2013년 2월 :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관심분야>

교사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인성교육